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데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탈현상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장 만

데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탈현상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장 만

# 인 준 서

장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20세기 중후반은 구조주의 관점이 해체된 후기 구조주의 시대였으며, 후기 구조주의 특성인 해체성은 데리다에 의해 주도되었다. 해체주의는 여러 비평이론들 중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순수미술, 시각디자인, 건축,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어 확장되고 있다.

현대인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다원화 경향으로 변화하면서 사회·문화적인 모든 요소들 또한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다원화 경향이 확대되고, 기존의 대중적인 의상의 하나였던 데님 의상이 중요한 패션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20세기 후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비중 있는 아이템으로 채택되고 있다. 데님 의상이 하이패션에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고급 원단과 섬세한 수공예적 기법으로 장식되어 기존의 데님 의상과 차별화되며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해체주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2010년 S/S부터 2016년 F/W 까지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사례를 조사하여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해체주의에 관한 데님 패션의 표현 양식 및 디자인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데님 패션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고 현대의 데님 패션을 해체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패션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하였으며, 문헌연구는 단행본, 학위논문 및 학회지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사례연구는 인터넷에서 2010년 S/S부터 2016 F/W까지 발표된 컬렉션을 중심으로 찾아 조사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분석한 결과 차연, 탈현상,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의복 구성 중

형태가 크게 변형되어 나타나는 탈현상을 선정하여 하부 개념인 탈구성, 탈중심성, 불연속, 분열·붕괴가 데님 패션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탈구성의 특징은 의복의 기본 구성·형태·목적·기능과 재봉 방법 등을 해체시켜 왜곡되거나 과장된 형태로 나타나며, 복식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형태를 제외하고 다양하고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탈중심의 특징은 의복의 수직선과 수평선인 중심과 밑단이 기울어진 형태로 무질서하게 나타나며, 데님의 밑단의 울을 인위적으로 풀어 중심성이 더욱 해체되어 있다.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불연속의 특징은 의복 형태에서 구성이 삭제되거나 추가되어 비대칭적이고 이어지지 않는다. 데님과 반대되는 소재와 색상의 사용 및 혼합으로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분열·붕괴는 의복을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찢고 구멍을 내는 등 붕괴 또는 분열로 인해 인체를 우연히 노출시킨다. 데님의 울을 풀어 원단을 손상하는 파괴행위로 인하여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며 빈티지한 의복도 연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개념 중 탈현상을 선정하여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이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님 패션은 패션의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해체주의와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 디자인 분석 및 개발되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3
1. 데님의 일반적 고찰 .....	3
2. 해체주의의 일반적 고찰 .....	13
III.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탈현상 .....	36
1. 탈구성 .....	36
2. 탈중심 .....	40
3. 불연속 .....	44
4. 분열·붕괴 .....	48
IV. 결론 .....	53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 1>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	19
<표 2> 패션에 나타나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징과 사례 .....	35
<표 3> 데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탈현상 .....	52

## 그림 목 차

<그림 1> 라바이 스트라우스 .....	8
<그림 2> 데님 오버 올 .....	8
<그림 3> 구리 리벳 .....	8
<그림 4> 데님을 사용한 작업복 .....	8
<그림 5> Undercover 2016 S/S .....	23
<그림 6> Jean Paul Gaultier 2011 S/S .....	23
<그림 7> Vivienne Westwood 2016 F/W .....	23
<그림 8> Comme des Garçons 2011 F/W .....	23
<그림 9> Comme des Garçons 2015 F/W .....	26
<그림 10> Jacquemus 2016 F/W I .....	26
<그림 11> Rick Owens 2016 F/W .....	26
<그림 12> Marc Jacobs 2016 F/W .....	26
<그림 13> Jacquemus 2016 F/W II .....	27
<그림 14> Louis Vuitton 2016 S/S .....	27
<그림 15> Jean Paul Gaultier 2010 S/S .....	27
<그림 16> Akris 2016 S/S .....	27
<그림 17> Maison Martin Margiela 2014 S/S .....	29
<그림 18> Jean Charles de Castelbajac 2014 S/S .....	29
<그림 19> Kenzo 2015 F/W .....	29
<그림 20> Vivienne Westwood 2012 S/S I .....	29
<그림 21> Marc Jacobs 2016 F/W I .....	33

<그림 22> Vetements 2016 F/W .....	33
<그림 23> Chromat 2016 F/W .....	33
<그림 24> Alert 2010 S/S .....	33
<그림 25> Vivienne Westwood 2012 S/S II .....	34
<그림 26> Jacquemus 2016 S/S I .....	34
<그림 27> Gareth Pugh 2016 S/S I .....	34
<그림 28> Marc Jacobs 2016 F/W I .....	34
<그림 29> Theyskens' Theory 2012 S/S .....	38
<그림 30> Marques' Almeida 2015 F/W I .....	38
<그림 31> Moschino 2015 F/W I .....	38
<그림 32> Marques' Almeida 2016 S/S I .....	38
<그림 33> Hood by Air 2015 F/W .....	39
<그림 34> Moschino 2015 F/W II .....	39
<그림 35> Faustine Steinmetz 2015 S/S .....	39
<그림 36> Gareth Pugh 2016 S/S II .....	39
<그림 37> Junya Watanabe 2014 S/S I .....	42
<그림 38> Marques' Almeida 2014 F/W .....	42
<그림 39> Marques' Almeida 2015 F/W II .....	42
<그림 40> Marques' Almeida 2016 S/S II .....	42
<그림 41> Junya Watanabe 2014 S/S II .....	43
<그림 42> Parsons MFA 2015 S/S .....	43
<그림 43> Ashish 2013 S/S I .....	43
<그림 44> Marques' Almeida 2012 S/S I .....	43

<그림 45> Jean Paul Gaultier 2010 F/W I .....	46
<그림 46> Junya Watanabe 2014 S/S III .....	46
<그림 47> 3.1 Phillip Lim 2016 S/S .....	46
<그림 48> Tom Ford 2015 F/W .....	46
<그림 49> Ashish 2013 S/S II .....	47
<그림 50> Jacquemus 2016 S/S II .....	47
<그림 51> Off White 2016 F/W .....	47
<그림 52> Yohji Yamamoto 2015 S/S .....	47
<그림 53> Jean Paul Gaultier 2010 F/W II .....	50
<그림 54> Marques'Almeida 2015 F/W III .....	50
<그림 55> Marques'Almeida 2016 S/S III .....	50
<그림 56> Ashish 2016 S/S .....	50
<그림 57> Off White 2016 S/S .....	51
<그림 58> EACH x OTHER 2016 S/S .....	51
<그림 59> Faustine Steinmetz 2015 S/S .....	51
<그림 60> Viktor & Rolf 2016 F/W .....	51

# I. 서론

20세기 중후반은 구조주의적 관점이 해체된 후기 구조주의 시대로 변화하였으며, 18세기의 계몽주의로 인한 합리주의, 이성 지상주의가 20세기 이후 등장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이성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원주의적 세계관이 형성되었다<sup>1)</sup>.

후기 구조주의의 특성인 해체주의는 데리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여러 비평이론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다. 예술, 건축, 역사학, 법학, 정신분석학, 신학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와 형이상학적 전통이 해체되어 미술, 건축, 패션 등의 분야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sup>2)</sup>.

20세기 이후 현대인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다원화 경향으로 흐르면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 또한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패션에서도 다원화 경향이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대중적인 의상의 하나였던 데님의상이 중요한 패션 트렌드로 부각되어 20세기 후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비중 있는 아이템으로 채택되고 있다. 데님이 하이패션에서 비중을 가지게 되면서 고급 원단과 수공예적 기법으로 장식되어 기존의 데님 의상과 차별화되며 발전해왔다. 세대와 유행이 변화해도 데님 의상은 패션계에 민감한 트렌드 아이템이 되고 있다.<sup>3)</sup>

해체주의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데님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체주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2010년 S/S부터 2016년 F/W 컬렉션을 중심으로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사례를 조사하여 특성을 정리

---

1) 하임성(2010).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해체주의적 특성과 앞으로의 전망. 기초조형학연구, 11(3), p. 528.

2) 노영화(2007). 원근법형성과 디지털시대 디자인에 있어 해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95.

3) 이효진(2004). 데님의상의 현대문화사적 분석. 服飾, 54(8), p. 76.

함으로써 해체주의에 관한 데님 패션의 표현 양식 및 디자인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데님 패션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고 현대의 데님 패션을 해체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패션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데님 패션과 해체주의의 문헌연구를 위하여 국내에 출판된 단행본 및 간행본, 학위논문 및 학회지에 발표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특징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2010년 S/S부터 2016 F/W까지 발표된 컬렉션을 중심으로 찾아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특징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데리다의 해체주의 개념 중 의복의 형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탈현상을 선정하였으며, 탈현상의 하부 개념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붕괴의 4가지로 분류하여 2010년 S/S부터 2016 F/W까지 발표된 컬렉션을 중심으로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탈현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데님의 일반적 고찰

#### 1) 데님의 개념과 발달

데님의 사전적 정의는 경사에 짠 청색의 10~14번수 굵기의 실을 사용하고, 위사에 회색 또는 표백하지 않은 12~16번수 굵기의 실을 능직으로 제직한 직물이며<sup>4)</sup>, 표면은 청색이고 이면은 백색을 나타내며, 두껍고 질긴 특성이 있다<sup>5)</sup>. 전통적으로 경사는 천연 인디고 염료로 염색하였으나, 현재는 색상 및 관리가 쉬운 합성 인디고 염료를 사용한다.<sup>6)</sup>

일반적인 데님은 데님의 어원은 프랑스 지방 이름인 ‘님(Nimes)’에서 기원하는데, 이는 16세기 ‘님’이라는 프랑스 마을에서 데님을 생산하여 프랑스어로 ‘서지 드 님(Serge de Nimes)’라고 하였고<sup>7)</sup>, 이후 데님 원단이 영국에 전파되면서 발음이 어려웠던 프랑스어가 영국 원단 도매업자 사이에서 ‘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데님(Denim)’이라는 명칭이 되었다<sup>8)</sup>.

데님과 유사한 개념에는 진(Jean)이 있다<sup>9)</sup>. 데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상의 실로 제직된 직물을 말하는 것이며, 진은 같은 색상의 두 가지 실로 제직된 직물을 일컫는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sup>10)</sup> 진이라는 말은 블루데

4)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1999). 패션 큰 사전. 서울: 교문사, p. 90.

5) 이해자 외 4인(2006). 의류소재의 이론과 실제. p. 33.

6) 송화순 외 2인(2012). 텍스타일. 서울: 교문사, p. 250.

7) 고훈만·김연실(2002). 블루: 색의 역사. 서울: 한길아트, p. 221.

8) 김민아(2003). 데님(Denim) 패션 디자인 연구: 신규 브랜드 상품 기획·개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9) 김민정·채금석(2002). 진즈패션의 상징성 연구: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를 중심으로. 服飾, 52(7), p. 156.

10) 김채현(2015). 렘 쿨하스(Rem koolhaas) 건축에 나타난 기하학적 조형성을 응용한 데님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0.

님을 즐겨 입었던 이태리 선원 ‘제노이스(Genoese)’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이태리산 면바지를 입었던 제노바 사람을 가리키는 불어의 ‘진스(Genes)’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sup>11)</sup>, 16세기의 삼베 또는 목화와 울을 섞은 천인 ‘진 푸스티안(Jean Fustian)’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sup>12)</sup>.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금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금광 채굴에 따른 노동자들이 질기고 값싼 튼튼한 작업복이 필요하였다.<sup>13)</sup> 1853년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그림 1)는 텐트 원단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데님 오버올(Denim Overall)(그림 2)을 제작하였고, 이는 곧 세계 최초의 청바지였다<sup>14)</sup>. 1872년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제이콥 데이빗(Jacob Davis)와 함께 청바지에서 터지기 쉬운 부분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구리 리벳(Rivet)(그림3)을 제작하여 특허를 획득하였다<sup>15)</sup>.

1940년대의 데님은 미국 서부의 광부들의 작업복(사진 4)이나 카우보이들에 의해서 착용되었다<sup>16)</sup>. 제 2차 세계대전(1941~1946)의 미군 군인의 유니폼에 데님이 사용되었으며, 전쟁 후 유럽에서 유니폼을 공급하던 상점에서 남아 있는 데님을 팔기 시작하여 유럽 전역에 데님이 유행하게 되었다<sup>17)</sup>.

1950년대의 미국은 TV광고나 영화 등 대중매체에 의해 상품의 대량생산·판매·소비 시대가 도래하여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10대들은 패션 시장의 주역으로 급 부상해 남녀가 함께 입

---

11) 이효진(2004). 전계서, p. 76.

12) 최지향(2009). 블루진 세계 경제를 입다. 서울: 부키, p. 169.

13) 소연정(2007). 청바지 패턴 제작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14) 김민정·채금석(2002). 전계서, p. 156.

15) 박길순(2000). 패션의 세계.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p. 120.

16) 정현숙(2000).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p. 141.

17) 유정수(2008). 아프리카 민속적 이미지를 표현한 데님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5.

을 수 있는 유니섹스 데님 팬츠가 대량 생산되었다.<sup>18)</sup> 할리우드의 영화배우 말론 브랜도와 제임스 딘, 로큰롤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가 착용한 데님 팬츠를 젊은이들이 모방하였으며, 부모 세대가 요구하는 기성체제 및 의복 양식에 대해 거부하는 등 데님 팬츠는 반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sup>19)</sup>.

1960년대부터 데님 팬츠는 점차 일상화되어 남녀 공용의 캐주얼 패션으로 착용하게 되었으며<sup>20)</sup>, 다양한 디자인의 데님 팬츠가 등장하면서 여성들의 데님 착용이 증가하였다<sup>21)</sup>. 팝 뮤지션들의 데님 패션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개성의 표현으로 페인팅, 애플리케, 패치, 라인스톤, 징 등 다양한 디테일을 첨가하여 표현하기도 했다.<sup>22)</sup> 이러한 데님 패션의 인기로 인하여 1960년대 말에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청바지 판매는 연간 1억 개가 넘었다.<sup>23)</sup>

1970년대는 영화와 TV·광고·대중 음악을 통해 데님 패션은 짧은 시간 내에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sup>24)</sup>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데님의 대중화는 본격화되었으며, 1975년에 데님 가공기법인 스톤 워싱(Stone Washing)법이 일본의 에드윈(Edwin)사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붐을 이뤘으며, 이 공정법은 1979년 이후 대중화되었다.<sup>25)</sup> 1975년경 데님 진은 모든 의상과 함께 모든

---

18) 정영희(2000). Jean 소재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울 뽑기와 울 풀기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6-7.

19) 금기숙 외 3인(2009). 20세기 패션 아이콘. 서울: 미술문화, p. 136.

20) 이재원(2002).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20세기 패션 문화사. 서울: 한길아트, p. 383.

21) 김혜순(2002). 데님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스티치 장식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4.

22) 유정수(2008). 전개서, pp. 25-26.

23) 김정은(2013). 패션의 역사. 서울: 시공사, pp. 134-135.

24) 장정연(2004). 색동 이미지를 활용한 데님의상디자인 연구: 디테일 장식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0.

25) 김연정(2003). 청바지 형태에 따른 소비자 착용실태 및 착의평가.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장소에서 착용되었다. 데님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평등주의를 실현했고, 모든 디자이너들이 본인 스타일로 데님을 해석하여 디자인하였다.<sup>26)</sup>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데님은 그 패턴이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했으며, 데님의 색깔도 바랜 블루부터 블랙까지 다양화되고, 찢어진 데님이 반항을 나타내어 젊은 패션의 상징으로 자리잡는 등 패션을 선도하는 아이템이 되었다.<sup>27)</sup> 1980년대 초반에는 데님의 수요가 잠시 주춤하는데, 이것은 다양한 소재의 개발로 데님 외의 소재를 사용한 캐주얼 팬츠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다.<sup>28)</sup> 1980년대에 들어 데님은 스포츠 웨어나 캐주얼웨어로서 강세를 보였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고유 라벨을 단 독창적인 디자인과 품질로 다양한 데님 패션을 선보이기 시작했다.<sup>29)</sup>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워싱 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디자인의 데님이 등장하였고, 데님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계급 차별이 없는 옷으로 인식되어 보다 넓은 계층에서 착용되는 가장 보편화된 20세기의 룩이 되었다.<sup>30)</sup> 이 시기에는 데님 패션이 과거와 같이 하위문화를 상징하는 의복으로 조명 받게 되었다. 힙합 문화를 선도하는 오버 사이즈의 힙합룩(Hip Hop Look) 데님이 새로운 열풍을 일으켰고, 기능주의와 실용주의가 데님 패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치 데님 소재가 개발이 되어 편리하게 착용하였다.<sup>31)</sup>

2000년 이후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서 데님을 활용한 의상을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데님 의상의 전성시대라 불릴 만큼 고

---

26) 김정은(2013). 전계서, pp. 134-135.

27) 이효진(2004). 전계서, p. 77.

28) 김민정(2000). 진즈 패션의 상징성 연구: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29) 조아라 외 2인(2011). 현대 여성 데님 패션의 코디네이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2), p. 136.

30) 김해순(2002). 전계서, p. 17.

31) 김민정(2000). 전계서, p. 13.

급화로 각광받고 있다. 워싱과 디테일이 독특하며 화려한 디자인의 데님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남들과 차별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sup>32)</sup>. 데님은 스타일링에 있어서도 힙합 룩, 스포츠 룩에서부터 바디 라인을 부각시켜 주는 글래머 룩으로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캐주얼 웨어 뿐만 아니라 이브닝 웨어로도 손색이 없는 데님 드레스, 슈트, 팬츠까지 선보이고 있다.<sup>33)</sup> 데님 패션은 데님 브랜드가 영 패션의 시장을 주도하였으며, 2000년대 데님 시장은 고가의 수입 데님 브랜드와 중·고가 라이센스 또는 국내 브랜드들로 분류되어 다양한 디자인의 데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sup>34)</sup>.

데님은 발생 초기에 미국 서부 광부들이 착용하여 작업복으로써의 기능을 가졌고, 이러한 실용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면서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옷으로 데님을 인식하게 되었다.<sup>35)</sup> 반항적인 룩의 구성 요소였던 티셔츠와 데님은 오늘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유니폼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입는 주요 품목이 되었다.<sup>36)</sup> 최근 고가의 프리미엄 데님과 더불어 디자이너들에 의해 제작된 데님 패션의 혁신적인 창조성은 현재까지 변모한 것처럼 추후 다양한 데님 패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sup>37)</sup>.

---

32) 이주현·배수정(2015).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데님 소재 표현기법 연구: 2011 S/S~2015 F/W 중심으로. 디자인문화학회지, 21(4), p. 528.

33) 김채현(2015). 전계서, p. 31.

34) 김기욱(2004). Jeans Wear의 디자인 특성 비교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5-36.

35) 김혜순(2002). 전계서,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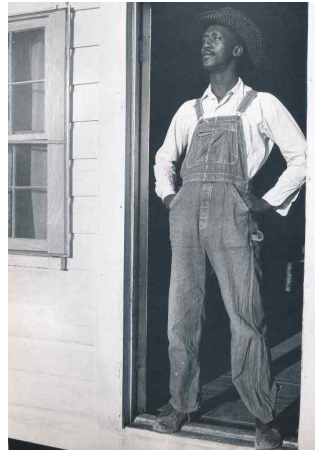
36) 금기숙 외 3인(2009). 전계서, p. 139.

37) 김채현(2015). 전계서, p. 33.



<그림 1> 리바이 스트라우스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14,  
[http://explore.levi.com/news/brand/10\\_facts\\_about\\_levi\\_strauss/](http://explore.levi.com/news/brand/10_facts_about_levi_strauss/))



<그림 2> 데님 오버올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18,  
Histories du jeans: de 1750 a 1994., p.14)



<그림 3> 구리 리벳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01,  
<http://www.levistrauss.com/unzipped-blog/2014/05/throwback-thursday-the-501-jean-turns-141/>)



<그림 4> 데님을 사용한 작업복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24,  
Histories du jeans: de 1750 a 1994. p.59)

## 2) 데님의 종류 및 특성

데님의 종류는 조직과 가공 방법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 (1) 조직에 따른 데님

데님은 조직에 따라 브로큰 데님(Broken Denim), 스트레치 데님(Stretch Denim), 스포츠 데님(Sports Denim), 자카드 데님(Jacquard Woven Denim), 코르셋 데님(Crorset Denim) 등 5가지로 분류된다<sup>38)</sup>.

#### ① 브로큰 데님

브로큰 데님은 물결 사문직(斜紋織)으로 제작한 데님이다. 기본 능직의 변형 조직인 브로큰 트월 조직으로 제작되어, 두 올 이상의 경사를 우능과 좌능으로 교차시킨다. 이 데님은 존 넬 워커(John NellWalker)에 의해 발명되어 1965년 랭글러(Wrangler)사의 13MWZ 데님팬츠에 최초로 사용되었다.<sup>39)</sup>

#### ② 스트레치 데님

스트레치 데님은 신축성이 있는 데님을 말한다. 보통 위사 방향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위사에 2~6%의 스판덱스를 면사와 섞어 사용하고, 가공할 때 수축시켜 신축성을 부여한다. 이 데님은 15~25% 정도의 신축성이 있으며, 신축성이 큰 합성섬유의 권축가공사로 제작한 데님이다.<sup>40)</sup>

#### ③ 스포츠 데님

스포츠 데님은 경사에 20수 이하의 색사를 사용하고, 위사에 경사보다

---

38) 유정수(2008). 전개서, p. 30.

39) 최진경(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진즈웨어(Jeans Wear)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40) 정은선·김정혜(2008). 로맨틱 JEAN 디자인 연구. 패션과 니트, 6(1), p. 45.

가는 실의 표백사 또는 색사를 사용하여 능직 또는 주자식으로 제작한 면직물이며,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다. 서핑, 요트 등 머린 스포츠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 하였으며, 스포티한 데님이나 스웨트 데님이 있다<sup>41)</sup>.

#### ④ 자카드 데님

자카드 데님은 가구용 천 또는 커버에 쓰이는 데님이다. 경사는 먼, 나일론 또는 레이온과 같은 굵은 실을 사용하고, 위사는 특수사를 사용한다. 위사의 밀도를 비교적 적게 하여 제작하여 다른 직물에 비해 얇고, 자카드 무늬를 넣은 뒤 유연 가공한다.<sup>42)</sup>

#### ⑤ 코르셋 데님

코르셋 데님은 영국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경사와 위사에 면사 또는 아마사를 사용하여 능직이나 불규칙한 파능직으로 제작된 두꺼운 데님이다. 다른 데님에 비해 부드럽지 않고 신축성이 없어 브래지어나 코르셋에 사용된다.<sup>43)</sup>

### (2) 가공방법에 따른 데님

가공방법에 따라 소프트 데님(soft-finished denim), 블리치 아웃 데님(Bleach Out Denim), 스톤 워시 데님(Stone Wash Denim), 워시 아웃 데님(Wash Out Denim), 케미컬 워시 데님(Chemical Wash Denim) 등 5가지로 분류된다<sup>44)</sup>.

---

41) 이소령(2006). 현대 데님의상에 표현된 해체주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

42) 상계서.

43) 정은선·김정혜(2008). 전계서, p. 46.

44) 김민아(2003). 전계서, p. 17.

### ① 소프트 데님

데님은 작업복에 사용된 원단으로 잘 해지지 않고 두껍고 뻣뻣한 촉감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 데님은 가는 실을 사용하거나 공정 과정에서 실에 풀을 적게 먹이고 부드럽게 가공한 직물이며, 여성패션에 주로 사용된다.<sup>45)</sup>

### ② 블리치 아웃 데님

블리치 아웃 데님이란 ‘표백’이라는 의미이며, 인디고 블루 데님을 의도적으로 하얗게 표백하여 낡은 느낌으로 만든 데님이다. 표백 시 부석과 차염산을 넣어 탈색하며, 스노우 워시 기법에 비해 깨끗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sup>46)</sup>

### ③ 스톤 워시 데님

스톤 워시 데님은 인위적으로 중고처럼 가공한 데님이고, 데님의 표면을 돌로 긁어내는 기법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 블리치 아웃이 데님이나 워시 아웃 데님과 달리 하얀 얼룩 무늬 모양으로 염색되는 것이 특징이다.<sup>47)</sup>

### ④ 워시 아웃 데님

워시 아웃은 ‘탈색된’이라는 뜻으로, 이 기법은 리바이스의 인디고 블루 데님 팬츠의 단순함을 벗어나기 위해 나타났다. 데님 팬츠 생산 공정에서 5회 정도 세탁하여 자연스럽게 탈색되며, 촉감이 부드럽고 착용 전에 세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면섬유의 단점인 축음을 방지할 수 있다.<sup>48)</sup>

---

45) 최진경(2003). 전계서, p. 9.

46) 정은선·김정혜(2008). 전계서, p. 21.

47) 이주현·배수정(2015). 전계서, p. 529.

48) 홍순화(1997). 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7.

⑤ 케미컬 워시 데님

케미컬 워시 데님은 화학적으로 탈색하여 중고처럼 보이게 만든 데님이다. 케미컬 워시 기법은 염소계 세제를 생지에 바르면 액체를 바른 부분에 얼룩이 생기게 된다. 눈이 내린 것 같아 스노우워시 데님이라고 하며, 대리석(마블)같은 표면감으로 마블워시 데님이라고도 한다.<sup>49)</sup>

---

49) 장정연(2004). 전계서, p. 39.

## 2. 해체주의의 일반적 고찰

### 1) 개념 및 형성 배경

해체주의(Deconstruction)는 1960년대 후반에 구조주의를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 사상 중 하나이며,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sup>50)</sup>. 해체의 사전적 의미는 형성된 것을 해체하거나, 철학적·문학적이고 추상적인 가설과 내적 모순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다.<sup>51)</sup> 해체주의는 형이상학, 인과율의 개념, 통일, 안정성, 주체, 진리에 대해 비판하며<sup>52)</sup>, 단일한 사상체계가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여러 현상들을 포함한다.<sup>53)</sup> 해체주의는 현재 서구의 사상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최근의 비평 이론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철학 및 문학이론이다.<sup>54)</sup>

해체주의의 등장은 1968년 5월 혁명을 계기로 하여 구조주의의 한계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sup>55)</sup> 1960년대에 확산된 구조주의는 자아, 주체, 개인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개체에 대한 특권을 구조에 부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독선을 나타내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sup>56)</sup> 철학적 측면에서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가 영향을 미

---

50) 김주현 외 2인(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7(4), p. 81.

51) 윤숙원(2010).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5.

52) 이상민(2013). 해체주의 관점에서 아르망의 오브제 작업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지, 14(3), p. 201.

53) 김혜정(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3.

54) 윤소정(1996). 해체주의적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탈(脫)형식의 코디네이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55) 서희선(2005). '자연-해체 이미지'의 해석과 표현 양식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6.

56) 최영옥(2001).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服飾文化研究, 9(4), p. 576.

치면서, 구조주의에 내재해 있던 후기 구조주의가 전개과정에서 점차 외면화·이론화되고 방법론적으로 도출된 것이 해체주의이다.<sup>57)</sup> 해체주의 이론은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상적 흐름으로 논의를 거듭함에 따라 이론적 대상은 서구 철학사상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확산에 의해 해체이론은 여러 후기 구조주의 철학 사조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어지고 있다.<sup>58)</sup>

---

57) 한경예(2004). ISSEY MIYAKE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58) 노영화(2007). 전계서, p. 90.

## 2) 데리다의 해체주의

1966년 10월 자크 데리다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열렸던 ‘비평의 언어와 인문과학(The Languages of Criticism and The Science of Man)’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인문과학의 언술행위에 있어서의 구조,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Human Scienc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해체주의를 등장시켰다.<sup>59)</sup> 데리다는 플라톤 이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져 왔던 형이상학적 사고의 모순을 비판하고, ‘해체’라는 새로운 사유세계를 이룩하였다.<sup>60)</sup>

해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특성으로 인용, 텍스트와 글쓰기, 차연, 보충, 산종, 흔적, 현존과 부재,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디자인 개념에 적용할 수 있는 차연, 탈현상,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sup>61)</sup>.

‘차연(Différance)’이란 데리다가 만든 신조어이며, ‘Difference’라는 단어에서 e를 a로 바꿔 만든 신조어이다.<sup>62)</sup> 이것은 현존성의 강조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차이(Différance)의 개념에 ‘지연하는, 연기하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sup>63)</sup>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며, 시공간의 초월을 의미한다.<sup>64)</sup> 차연은 영원한 형태가 아니고 형태가 변한 과거이거나 미래들과의

59) 이수미(2010). 현대 상업 공간 실내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혼성의 공간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60) 이용창(2015). 해체주의 건축 관점에서 본 프랭크 게리 건축 특징을 적용한 뮤지엄 계획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61) 김지연·전혜정(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건축과 복식의 비교. 服飾, 32, p. 295.

62) 조진일(1994). 해체주의 건축의 이론적 배경과 디자인 성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63) 장정임·이영임(2006). Martin Margiela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 패션과 니트, 4(1), p. 66.

64) 김주현 외 2인(1999). 전개서, p. 580.

관계에 대한 흔적이며 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65)</sup> 데리다의 차연 개념은 언어의 의미가 끝없이 지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있을 수 없음을 뜻한다.<sup>66)</sup>

탈현상(Breakaway from Phenomenon)은 형이상학의 부정이나 존재·부재, 실재·허구, 본질·현상, 구상·추상 등의 이원론적인 구분에 따른 우위의 개념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부재, 허구, 현상, 추상 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sup>67)</sup> 탈구성(decompositon)은 본래의 의미인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분해하여 그 구조적인 범주 안에서 새로운 인식을 부여하는 것이다.<sup>68)</sup> 탈중심(decentering)은 이분법적 가치 구분에서 중심으로 여겨진 개념과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 개념으로 평가 절하되었던 타자성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이항대립의 공존이라는 절충성과 이로 인해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해체성이다.<sup>69)</sup> 불연속(discontinuity)은 연속성인 ‘틀’이 일련의 해체 과정을 거쳐 이전의 연속적인 개념 속에 내포된 일체성을 배제시키고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오브제 하는 것을 말한다.<sup>70)</sup> 분열·붕괴(disruption)는 쪼개거나 부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며 해체의 경향이 강한 것이다.<sup>71)</sup>

의미의 불확정성(Intermeaning of Meanings)은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72)</sup> 그러므로 절대적

---

65) 하임성(2010). 전계서, p. 530.

66) 서희선(2005). 전계서, p. 29.

67) 변영희(2010). 패션뷰티디자인에 표현된 탈(脫)현상성과 자유분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

68) 조말희(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구성현상 고찰. 디자인학연구, 36, p. 113.

69) 변영희(2010). 전계서 p. 79.

70) 최영옥(2001). 전계서, p. 578.

71) 상계서.

72) 장정임·이영임(2006). 전계서, p. 66.

인 개념이란 있을 수 없고 상대적인 개념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체계를 유지해나가게 되며, 불완전성이나 비결정성의 한계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그 의미들을 확산시키는 것이다.<sup>73)</sup> 이것은 의미란 기호에서 직접적으로 현존하지 않으며, 감상자는 궁극적인 기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뜻한다.<sup>74)</sup>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란 텍스트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며,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예술행위의 형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sup>75)</sup>.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데리다의 사유에는 텍스트로 간주되며,<sup>76)</sup> 이는 닫힌 단일성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텍스트의 흡수이고 그에 따른 변형으로 모든 텍스트는 기호화와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인용의 과정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sup>77)</sup>

해체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는 패션, 건축,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연구되었으나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이 나타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정세희(2003)<sup>78)</sup>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 중 탈중심화 중점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의 미적 특징과 미적 가치를 연구하였으며, 탈중심은 탈현상의 하부개념이다. 원선영(2000)<sup>79)</sup>은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을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현상으로 나누어 탈현상의 요소인 탈구성을 중심으로 디자인 분석 구성적 접근을 통한 디자인을

---

73) 권혜숙(2007).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모드와 특성. 패션비즈니스, 11(5), p. 114.

74) 김지연·전혜정(1997). 전개서, p. 299.

75) 이영재(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5.

76) 김형효(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민음사, p. 20.

77) 김혜정(2007). 전개서, p. 41.

78) 정세희(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9) 원선영(2000).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구하였다. 권혜숙(2007)<sup>80)</sup>은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을 의미의 불확정성, 탈중심성, 상호텍스트성으로 나누어 복식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탈중심성은 탈현상의 하부개념이다. 윤숙원(2010)<sup>81)</sup>, 김주현·권미정·이순자(1999)<sup>82)</sup>, 김지연·전혜정(1997)<sup>83)</sup>, 최영옥(2001)<sup>84)</sup>은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을 차연, 상호텍스트성, 의미의 불확정성, 탈현상으로 나누어 복식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표현과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패션에 적용시켜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해체주의의 특성 중 데리다의 해체주의 개념인 차연, 탈현상,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의 4가지를 선정하여 패션에서 나타나는 해체주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해체주의 특성 중 탈현상에서 복식의 형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는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개념 중 탈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80) 권혜숙(2007). 전게서, pp. 110-123.

81) 윤숙원(2010). 전게서.

82) 김주현 외 2인(1999). 전게서, pp. 578-596.

83) 김지연·전혜정(1997). 전게서, pp. 293-312.

84) 최영옥(2001). 전게서, pp. 574-591.

<표 1>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연도)	데리다의 해체주의				기타
	차연	탈현상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 트성	
정세희 (2008)		● (탈중심 화)			탈현상 하부개념 중 탈중심화를 중점으로 연구
원선영 (2000)	●	●	●	●	
권혜숙 (2007)		● (탈중심)	●	●	탈현상 하부개념 중 탈중심을 중점으로 연구
윤숙원 (2010)	●	●	●	●	
김주현 외 2인 (1999)	●	●	●	●	
김지연 · 정혜정 (1997)	●	●	●	●	
최영욱 (2001)	●	●	●	●	

### 3)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에서 해체라는 용어는 1989년 ‘디테일즈(Details)’라는 잡지에서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으며, 패션계에서는 1989년 10월 파리에서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1990년 S/S 컬렉션에서 해체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sup>85)</sup> 또한 199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개최된 인프라 어패럴(Infra Apparel)전의 카탈로그에서 기자인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과 헤롤드 코다(Herold Coda)가 패션에서의 해체주의 이론적인 성립을 표면화하였다. 이들은 복식에서의 해체는 “텍스트(복식)안에서 반대적인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인공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외형을 혼란시킴으로써 파괴하거나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6)</sup>

해체주의 패션은 80년대의 구조적이며 유니폼적인 경직성에 대한 안티 체제로서, 이에 대한 반발로 프랑스 디자이너와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스타일의 패션이다.<sup>87)</sup> 1994년과 1995년의 F/W 컬렉션에서 등장한 마사키 마쓰시마(Masaki Matsushima)의 쇼를 거점으로 ‘해체 룩’이라는 새로운 패션 용어가 등장하였다.<sup>88)</sup>

패션에 나타는 해체주의 특성은 선행연구를 통한 데리다의 해체주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차연, 탈현상,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의 4가지로 분류하여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

85) 한경예(2004). 전계서, p. 14.

86) 이영재(1998).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 1980년대 이후 해체주의 경향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18(1), pp. 113-114.

87) 한경예(2004). 전계서, pp. 14-15.

88) 김혜정(1998). 전계서, p. 64.

## (1) 차연

패션에서 나타나는 차연의 특성은 시간과 공간의 차연과 흔적의 차연으로 분류하였다<sup>89)</sup>.

시간과 공간의 차연은 과거·현재·미래의 복식을 결합시키기도 하고, 복고풍의 형태로 과거의 복식을 현대의 양식으로 표현한다.<sup>90)</sup> 차연은 현재에 결합된 과거 양식이 과거의 정서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이며, 현대의 소재와 감각으로 재구성되어 미래의 복식까지 상상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결합한다<sup>91)</sup>. <그림 5>는 언더커버(Undercover)의 2016 S/S 작품으로 전통적인 서양 복식의 양식인 자켓과 바지의 형태를 인용하고, 자켓에 다양한 종류의 원단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독특한 의복 재단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6>은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2010 S/S 작품으로 과거 여성 복식인 코르셋과 패치코트, 벌룬소매를 사용하고, 밑단에는 동물의 털로 스커트를 표현하였다. 과거의 의복 구성과 현대적인 의복 표현 방식을 접목시킨 작품이다.

흔적의 차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바래거나 닳는 등 과거의 물자가 부족했던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복식으로, 상실의 시대적 분위기 혹은 경제적 불황과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담기도 한다.<sup>92)</sup> 패션에서의 과거의 흔적은 재활용하여 나타내거나, 오리엔탈적이고 풍속적인 특징이 있다<sup>93)</sup>. <그림 7>의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2016 F/W 작품과 <그림 8>의 콤데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2011 F/W 작품은 재활용 한 느낌의 원단을 사용하여 빈티지 패션을 나타내며 과거의

89) 윤숙원(2010). 전개서, pp. 38-41.

90) 김주현 외 2인(1999). 전개서, p. 82.

91) 최영옥(2001). 전개서, p. 581.

92) 김지연·전혜정(1997). 전개서, p. 300.

93) 최영옥 외 2인(2007).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작품에 표현된 해체주의 경향: 2001~2006년을 중심으로. 服飾文化研究, 15(2), p. 189.

혼적을 표현하였다.

패션에 나타난 차연의 특징인 시간과 공간의 차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현재·미래를 결합시키고, 과거 역사적인 복식을 현대의 의복구성이나 소재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패션으로 재조명한다. 혼적의 차연은 닳거나 바랜 재활용된 원단을 사용하는 등 오래된 느낌의 빈티지 룩으로 표현된다.



<그림 5> Undercover

2016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05,  
<http://shows.vogue.com.cn/Undercover/2016-ss-RTW/runway/photo-545910.html#photo=546038>)



<그림 6> Jean Paul Gaultier

2010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5. 16,  
<http://runway.vogue.co.kr/2010/02/25/haute-couture-2010-ss-jean-paul-gaultier/#0:41>)



<그림 7> Vivienne Westwood

2016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24,  
<http://runway.vogue.co.kr/2016/03/07/ready-to-wear-2016-fall-vivienne-westwood-collection/#0:10>)



<그림 8> Comme des Garçons

2011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03,  
<http://runway.vogue.co.kr/2011/04/22/ready-to-wear-2011-fw-comme-des-garcons/#0:14>)

## (2) 탈현상

패션에서 나타나는 탈현상의 특성은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붕괴의 네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였다<sup>94)</sup>.

탈구성은 기능 및 목적을 해체시키고, 형태를 파괴하거나 무시하여 봉제를 하지 않는 복식이다. 복식의 봉제를 극소화하며, 기존의 의복 구성 방식을 파괴하여 왜곡하거나 과장된 형태 등으로 복식이 갖추어야 기본적인 형태를 제외하고 표현된다.<sup>95)</sup> <그림 9>는 폼 데 가르송의 2015 F/W 작품으로 자켓, 스커트, 원피스 등 기본적인 의복 형태를 파괴하여 원형으로 디자인 되었다. <그림 10>은 자크뮈스(Jacquemus)의 2016 F/W 작품으로 어깨 부분을 과장되게 확대시키고, 허리 부분은 조여 과장적인 대비가 보인다.

탈중심은 인체를 기준으로 복식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준이 해체된 무질서한 디자인을 말하며, 기존의 형태를 재배치하여 새롭게 재인식하는 과정이다<sup>96)</sup>. 구성상의 변형을 통한 왜곡과 과장으로 시각적 착시를 유발시킨다.<sup>97)</sup> <그림 11>은 릭 오웬스(Rick Owens)의 2016 F/W 작품으로 바지의 허리 부분과 밑단이 과장되게 길어진 형태이며, 재단되지 않은 원단을 어깨에 걸침으로써 상의처럼 보이게 하는 등 시각적 착시를 유발시킨다. <그림 12>는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의 2016 F/W 작품으로 상의에 사선의 계터를 사용하여 중심이 이동한 듯한 탈중심의 특징이 나타난다.

불연속은 디자인, 소재, 색상, 식서, 기법을 무질서하게 사용하여, 연속성을 탈피하고, 좌우 또는 상하가 일치하지 않는 부조화로 비대칭이 보

94) 이소령(2006). 전계서, p. 52.

95) 김지연·전혜정(1997). 전계서, p. 306.

96) 윤숙원(2010). 전계서, p. 60.

97) 김혜정(1997). 전계서, pp. 94-95.

여진다.<sup>98)</sup> 의복을 아무렇게나 구겨 주름을 잡아 불규칙한 선을 구성하고, 우연과 중첩, 그리고 혼합으로 나타내고 있다.<sup>99)</sup> <그림 13>은 자크뫼스의 2016 F/W 작품으로 상의는 좌우의 소매가 각각 다른 색과 형태이며, 검은색 상의를 덧입은 것처럼 나타나는 무질서한 디자인이다. 스커트 밑단이 사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좌우 부츠의 색상도 다르다. 전체적으로 부조화된 불연속성이 나타난다. <그림 14>는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2016년 S/S 작품으로 가죽 소재의 자켓과 여성스러운 벌룬 스커트는 강한 대비를 보여주며 부조화된 불연속성이 보여진다.

분열·붕괴는 의도적으로 손상하는 명백한 파괴 행위이며, 행위 대상을 분해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일련의 해체과정이다.<sup>100)</sup> 의도적으로 의복을 닳게 하거나 찢고, 구멍을 내는 등의 분열 또는 붕괴로 나타난 현상은 인체를 노출시켜 파괴적인 미와 퇴폐적인 미를 표현한다.<sup>101)</sup> <그림 15>는 장 폴 고티에의 2010 S/S 작품으로 원단을 찢어 자연스럽게 신체와 속옷을 노출하였다. <그림 16>은 아크리스(Akris)의 2016 S/S 작품으로 상의에 불규칙적인 원형 구멍을 내어 우연히 신체를 보여준다.

패션에 나타나는 탈현상은 의복의 구성 방식을 파괴하거나 왜곡하고 무질서하며 부조화되고 분해하는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의복의 기본 구성에 대해 탈피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의복 형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난다.

---

98) 김지연·전혜정(1997). 전계서, p. 306.

99) 최영옥(2001). 전계서, p. 589.

100) 김지연·전혜정(1997). 전계서, p. 307.

101) 윤숙원(2010). 전계서, p. 63.



<그림 9> Comme des Garçons  
2015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4. 17,  
<http://runway.vogue.co.kr/2015/03/09/ready-to-wear-2015-fw-comme-des-garcons/#0:13>)



<그림 10> Jacquemus  
2016 F/W 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18,  
<http://runway.vogue.co.kr/2016/03/02/ready-to-wear-2016-fall-jacquemus-collection/#0:23>)



<그림 11> Rick Owens  
2016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3. 19,  
<http://runway.vogue.co.kr/2016/03/04/ready-to-wear-2016-fall-rick-owens-collection/#0:33>)



<그림 12> Marc Jacobs  
2016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1,  
<http://runway.vogue.co.kr/2016/02/19/ready-to-wear-2016-fall-marc-jacobs-collection/#0:54>)



<그림 13> Jacquemus

2016 F/W 2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22,

<http://runway.vogue.co.kr/2016/03/02/ready-to-wear-2016-fall-jacquemus-collection/#0:30>)



<그림 14> Louis Vuitton

2016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11,

<http://runway.vogue.co.kr/2015/10/08/ready-to-wear-2016-ss-louis-vuitton-collection/#0:26>)



<그림 15> Jean Paul Gaultier

2010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5. 24,

<http://runway.vogue.co.kr/2009/10/16/ready-to-wear-2010-ss-jean-paul-gaultier/#0:26>)



<그림 16> Akris

2016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29,

<http://runway.vogue.co.kr/2015/10/05/ready-to-wear-2016-ss-akris-collection/#0:0>)

### (3) 의미의 불확정성

패션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불확정성의 특성은 기호화의 불확정성과 착장방식의 불확정성으로 나누었다<sup>102)</sup>.

기호화의 불확정성은 기호화한 추상적 형상에 따라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되며, 낙서나 글자, 기호화한 추상 형태의 패션 도입으로 기존 미적 체계의 파괴와 미래에 재해석되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제시한다.<sup>103)</sup> <그림 17>은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의 2014 S/S 작품으로 상의는 타투에 나타나는 모양의 패치를 이은 듯한 구성으로 기호화한 추상적인 형태의 복식이다. <그림 18>은 장 샤를 드 카스텔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jac)의 2014 S/S 작품으로 알파벳을 프린트한 화이트 칼라의 원단과 블랙 칼라의 원단으로 색상의 대비를 나타내었으며, 원단에 글자를 도입하여 기호화한 작품이다.

착장방식의 불확정성은 착장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sup>104)</sup>, 겹쳐 입거나 자유롭게 두르고 휘감는 등 인체 위에 착용된 후에 그 형태를 알 수 있고, 무형식의 표현법을 제시하였다<sup>105)</sup>. <그림 19>는 겐조(kenzo)의 2015 F/W 작품으로 상의는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몸에 감았으며, 하의는 팬츠 위에 스커트를 착용한 레이어드 룩이 나타난다.<그림 20>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12 S/S 작품으로 스카프의 착용 방법에 따라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라 질 수 있다.

패션에 나타나는 의미의 불확정성은 추상적인 기호를 사용하고, 규칙 없이 착장하거나 겹쳐 입어 레이어드 룩으로 보여지며, 해석의 관점이 감상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02) 김지연·전혜정(1997). 전계서, p. 301.

103) 상계서.

104) 손영미(2004). 플리츠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服飾, 56(6), p. 162.

105) 장정임(2006). 전계서, p. 69.



<그림 17> Maison Martin Margiela  
2014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26,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4-couture/maison-martin-margiela/slideshow/collection#9>)



<그림 18> Jean Charles de Castelbajac  
2014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4. 27,  
<http://nowfashion.com/jean-charles-de-castelbajac-ready-to-wear-spring-summer-2014-paris-4499?photo=258278>)



<그림 19> Kenzo  
2015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18,  
<http://runway.vogue.co.kr/2015/03/09/ready-to-wear-2015-fw-kenzo/#0:35>)



<그림 20> Vivienne Westwood  
2012 S/S 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8. 29,  
<http://runway.vogue.co.kr/2011/11/23/ready-to-wear-2012-ss-vivienne-westwood/#0:2>)

#### (4) 상호텍스트성

패션에서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은 성(gender), 탈 T.P.O., 코디네이션, 소재로 분류하였다<sup>106)</sup>.

성의 상호텍스트성은 양성적 이미지의 복식과 중성적 이미지의 복식으로 나눌 수 있다.<sup>107)</sup> 양성적 이미지의 복식은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며, 남성복에 여성 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시키고, 여성복에는 남성복의 형태와 아이템 등을 적용한 것이다.<sup>108)</sup> 중성적 이미지의 복식은 유니섹스 룩(Unisex look)이며, 남성과 여성의 성을 배제하고 각각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을 무시한 복식이다<sup>109)</sup> <그림 21>은 마크 제이콥스(Mark Jacobs)의 2016 F/W 작품으로 상의와 하의는 오버사이즈로 남성적인 느낌을 나타내었으나 허리와 목 부분에 큰 리본을 달아 여성미와 남성미 결합시킨 앤드로지너스 룩이 나타난다. <그림 22>는 베트멍(Vetements)의 2016 F/W 작품으로 상의는 남성복의 셔츠와 자켓을 사용하여 과장되게 표현하였으며, 하의는 니삭스를 여성의 스타킹 형태로 디자인한 유니섹스 룩이 나타난다.

탈 T.P.O.의 상호텍스트성은 속옷의 겉옷화, 스포츠웨어의 일상복화, 낮과 밤의 혼동으로 활동복과 잠옷, 작업복과 일상복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계절에 따른 의복의 규범이 무시되는 것이다.<sup>110)</sup> <그림 23>은 크로맷(Chromat)의 2016 F/W 작품으로 아우터는 점퍼로 실외에서 착용하는 옷이나 하의는 신체가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레깅스보다는 스타킹에 가까운 디자인이다. 속옷으로 착용하는 스타킹을 실외복으로 착용하여 의복

106) 경은주(1995). 현대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0-21.

107) 김지연·전혜정(1997). 전개서, p. 302.

108) 윤숙원(2010). 전개서, p. 47.

109) 상계서.

110) 김주현 외 2인(1999). 전개서, p. 83.

의 규범이 무시되고 있다. <그림 24>은 아트(Alert)의 2010 S/S 작품으로 상의와 하의를 시스루 원단을 사용하여 속옷이 드러나는 디자인이다. 속옷이 밖으로 드러남으로써 속옷이 겉옷화되어 의복의 규범을 무시한 디자인이다.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은 과거에 고정되었던 코디네이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기존 코디네이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이 있으며<sup>111)</sup>, 이미지·용도·목적의 혼용, 겹쳐 입는 방식, 다양한 악세사리의 착용으로 복식의 형태를 표현한다.<sup>112)</sup> <그림 25>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12 S/S 작품으로 블루 컬러의 자켓에 불규칙하고 과장된 체크 원단과 호피무늬 원단을 네크라인과 밑단에 결합시킨 디자인으로 자유로운 혼합이 나타난다. <그림 26>은 자크뫼스의 2016 S/S 작품으로 오른쪽에는 정장이며, 왼쪽은 캐주얼한 원피스 형태로 전혀 다른 이미지가 상호 인용되어 목적의 혼용이 보여진다.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은 이질적 소재의 혼용으로 혼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sup>113)</sup> 신소재 개발과 사고의 변화, 개성의 표현 등으로 소재 사용이 다양해져 안감으로 겉옷을 만들거나, 겉옷 전체를 시스루 소재로 사용하여 기존 상식적인 소재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sup>114)</sup> <그림 27>은 가레스퓨(Gareth Pugh)의 2016 S/S 작품으로 레드 컬러의 스팅글을 사용하여 원피스를 만들었으며, 그 위에 블랙 컬러의 원단으로 제작한 원피스를 결합하는 등 이질적인 소재를 혼용하였다. <그림 28>은 마크 제이콥스의 2016 F/W 작품으로 시스루 원단을 사용한 원피스 위에 가죽 자켓을 입고 상의와 하의에 퍼를 사용하는 등 이질적인 소재의 혼용으로 혼합 양상이 보여진다.

---

111) 최영옥(2001). 전계서, p. 586.

112) 김지연·전혜정(1997). 전계서, p. 304.

113) 김혜정(1997). 전계서, p. 82.

114) 최영옥(2001). 전계서, p. 586.

패션에서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은 성, 탈 T.P.O., 코디네이션, 소재의 고전적이고 상상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인 의미를 가진 각각의 독립된 아이템의 기능, 형태, 착용방법 등을 무시하여 서로 교차되어 혼합됨으로써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를 차연, 탈현상,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 성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과 사례를 알아보았으며 다음 <표 2>과 같다.



<그림 21> Marc Jacobs  
2016 F/W 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30,  
<http://runway.vogue.co.kr/2016/02/19/ready-to-wear-2016-fall-marc-jacobs-collection/#0:40>)



<그림 22> Vetements  
2016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5. 29,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vetements>)



<그림 23> Chromat  
2016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1,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chromat/slideshow/collection#9>)



<그림 24> Alert  
2010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11,  
<http://www.lovelyish.com/722655985/spring-2010-trend-alert-underwear-as-outerwear/>)



<그림 25> Vivienne Westwood  
2012 S/S 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8,  
<http://runway.vogue.co.kr/2011/11/23/ready-to-wear-2012-ss-vivienne-westwood/#0:41>)



<그림 26> Jacquemus  
2016 S/S 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3,  
<http://runway.vogue.co.kr/2015/09/30/ready-to-wear-2016-ss-jacquemus-collection/#0:3>)



<그림 27> Gareth Pugh  
2016 S/S 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05,  
<http://runway.vogue.co.kr/2015/09/20/ready-to-wear-2016-ss-gareth-pugh-collection/#0:31>)



<그림 28> Marc Jacobs  
2016 F/W 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3,  
<http://runway.vogue.co.kr/2016/02/19/ready-to-wear-2016-fall-marc-jacobs-collection/#0:50>)

<표 2> 패션에 나타나는 테리다의 해체주의 특징과 사례

		차연		탈현상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사례	종류	· 시간과 공간의 차연	· 흔적의 차연	· 탈구성	· 탈중심	· 불연속	· 분열·붕괴	· 기호화의 불확정성	· 착장방식의 불확정성	· 성	· 탈 T.P.O	· 코디네이션	· 소재
	특징	· 과거-현재-미래의 복식 결합	· 재활용된 소재	· 의복 구성 파괴, 왜곡, 과장	· 수직선,수평선 위치가 해체된 무질서한 의복	· 디자인, 소재, 색상의 연속성 탈피	· 의복을 구멍내거나 찢는 등 손상	· 추상적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재해석	· 레이어드 · 무형식 · 착장법	· 양성적 복식 · 중성적 복식	· 속옷의 걸옷화 등 의복 규범 무시	· 자유로운 결합, 대비	· 이질적 소재의 혼용
	사례												
사례													

### Ⅲ.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탈현상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복 구성 중 형태가 크게 변형되어 나타나는 탈현상을 중심으로 하부개념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붕괴로 분류하여,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탈구성

데님 패션에서 나타나는 탈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9>는 데스켄스 띠어리(Theyskens' Theory)의 2012 S/S 작품으로 허리 밴드 부분을 길게 연장하여, 허리띠를 아래쪽에 맨 듯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허리 밴드의 너비는 허리띠가 들어갈 만큼의 너비여야 한다는 기존의 구성을 파괴한 디자인이다. <그림 30>은 마르케스 알메이다(Marques'Almeida) 2015 F/W 작품으로 상의는 자켓 위에 판초 형태의 의상을 덧입었으며, 바지 앞부분에서 띠를 교차하여 다리를 감싸는 디자인으로 띠의 기능 및 목적을 해체시킨 디자인이다. 2015 F/W의 모스키노(Moschino)의 작품은 청바지의 허리 부분이 원피스의 밑단이 되며, 바지 부분이 원피스의 상의를 구성하고 있고, 목 뒤에서 바지의 밑단을 묶은 디자인이다. 청바지와 원피스에 대한 기존의 복식 구성 방식을 벗어나고 있다(그림 31). <그림 32>는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2016 S/S 작품으로 칼라와 허리띠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 형태로 상의의 칼라 부분에 허리띠와 같은 끈이 사용되어 있으며, 칼라의 기존의 구성 방식을 파괴한 디자인이다. <그림 33>은 후드 바이 에어(Hood by Air)의 2015

F/W 작품으로 스타킹을 다리 대신 얼굴에 착용하고, 자켓의 앞중심에 지퍼를 달았으나 장식적인 형태이며, 그 위에 사각형의 원단을 덧대어 가운데에 지퍼를 제작하여 등 의복의 여미는 방법을 독특하게 표현한 디자인이다. <그림 34>는 모스키노(Moschino)의 2015 F/W 작품으로 속옷의 윗부분과 바지의 주머니를 밖에 노출한 형태이며, 주머니는 안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복식 구성 방식을 벗어나는 디자인이다. <그림 35>는 포스틴 스테인메츠(Faustine Steinmetz)의 2015 S/S 작품으로 셔츠는 여러 조각의 데님으로 구성하여 재봉하였고, 바지의 허리 부분의 여유분을 허리띠나 고무줄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 뒷중심에서 눌러 박는 등 의복의 기본 재봉 방법을 벗어난 디자인이다. <그림 36>은 그렉 로렌(Greg Lauren)의 2016 S/S 작품으로 바지의 옆선에 스커트가 같이 재봉이 되어 바지의 앞쪽에서 스커트 끝의 끈을 묶은 형태로, 마치 바지 위에 스커트를 입은 것 같은 효과를 주나 재봉 과정에서 의복 구성을 파괴한 디자인이다.

이와 같이 데님 패션에 나타난 탈구성의 특징은 의복의 기본 구성·형태·목적·기능과 재봉 방법 등을 해체시켜 왜곡되거나 과장된 형태로 나타나며, 복식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형태를 제외하고 다양하고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29> Theyskens' Theory

2012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5,

<http://runway.vogue.co.kr/2011/11/24/ready-to-wear-2012-ss-theyskens-theory/#0:1>)



<그림 30> Marques' Almeida

2015 F/W 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18,

<http://runway.vogue.co.kr/2015/02/25/ready-to-wear-2015-fw-marquesalmeida/#0:23>)



<그림 31> Moschino

2015 F/W 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5. 08,

<http://runway.vogue.co.kr/2015/02/27/ready-to-wear-2015-fw-moschino/#0:48>)



<그림 32> Marques' Almeida

2016 S/S 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2,

<http://runway.vogue.co.kr/2015/09/22/ready-to-wear-2016-ss-marquesalmeida-collection/#0:21>)



<그림 33> Hood by Air  
2015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9,  
<http://runway.vogue.co.kr/2015/02/16/ready-to-wear-2015-fw-hood-by-air/#0:13>)



<그림 34> Moschino  
2015 F/W 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11,  
<http://runway.vogue.co.kr/2015/02/27/ready-to-wear-2015-fw-moschino/#0:40>)



<그림 35> Faustine Steinmetz  
2015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12,  
[http://secondstreet.ru/blog/dizainery/factory-faustine-steinmetz-ss\\_15.html](http://secondstreet.ru/blog/dizainery/factory-faustine-steinmetz-ss_15.html))



<그림 36> Greg Lauren  
2016 S/S 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3,  
<http://myfashiontips.com/site/how-to-wear-the-top-10-spring-summer-2016-trends-like-a-fashion-savvy-in-your-everyday-life/>)

## 2. 탈중심

데님 패션에서 나타나는 탈중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7>은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의 2014 S/S 작품으로 상의는 앞중심의 변형이 없는 화이트 셔츠이고, 스커트는 앞 부분에 사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상의와 하의가 색상 및 중심이 대비되어 있는 등 탈중심의 특징이 나타난다.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2014 F/W 작품에서 하의는 밑단의 울이 풀려 있는 상태이며, 바지의 주머니는 좌우 위치가 다르게 구성되어 비대칭이 보여진다. 상의는 원오피숄더로 구성되어 상의의 중심이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어 탈중심의 특징이 나타난다(그림 38). <그림 39>은 마르케이 알메이다의 2015 F/W 작품으로 원피스에 겹옷으로 자켓을 걸친 형태이며, 허리 부분에 치마를 왼쪽에 묶어 중심을 이동시켰으며, 밑단 길이를 다르게 하여 불규칙적이고 좌우가 비대칭 된 탈중심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40> 마르케이 알메이다의 2016 S/S 작품으로 상의는 원오피숄더 형태로 사선으로 기울어진 의복의 중심으로 인해 탈중심의 특징이 나타난다. 치마의 허리띠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래로 늘어뜨려 복식의 수평선을 해체하고 있다. 스커트는 불규칙적으로 원단이 배열되어 티어드 스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밑단이 풀어져 있는 등 탈중심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41>은 준야 와타나베의 2014 S/S 작품으로 상의는 좌우의 개더 주름 위치를 다르게 구성하여 불규칙적이고 비대칭된 형태가 보여진다. 하의는 치마 위에 청바지의 한 쪽 다리 부분의 안쪽을 절개하여 사선으로 붙여 치마와 바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등 전통적인 의복 체계를 해체하고 있으며, 중심선이 사선으로 구성되어 탈중심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42>는 파슨스 MFA(Parsons MFA)의 2015 S/S 작품으로 자켓 안의 상의가 불규칙적인 무늬와 풀어진 밑단에서 중심이 해체된 듯한 느낌을 주며, 한 쪽 바지의 옆선에만 프린지 장식

을 사용하여 좌우가 비대칭되어 탈중심성의 특징이 보여진다. <그림 43>은 아쉬시의 2013 S/S 작품으로 데님의 발생 초기의 노동복인 오버롤을 재해석한 디자인이다. 상의는 한 쪽 소매로만 구성되며 앞중심선이 어깨부터 허리까지 사선으로 기울어져 표현되어 탈중심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44>는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2012 S/S 작품으로 자켓은 밑단의 길이를 달리하여 앞은 길고 뒤는 짧게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마의 밑단 부분은 사선으로 구성되어 의복의 수평선을 해체하였고, 전체적으로 밑단의 울이 풀려 있어 더욱 중심이 해체되어 보이며 탈중심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데님 패션에서 나타나는 탈중심의 특징은 의복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중심과 밑단이 기울어진 형태로 무질서하게 나타나며, 데님 소재 특성 상 밑단 처리를 하지 않고 울을 인위적으로 풀어 중심성이 더욱 해체되어 있다. 전통적인 의복 구성·관념에서 벗어나 불규칙적이고 비대칭되어 의복 중심이 기울어져 표현되고 있다.



<그림 37> Junya Watanabe  
2014 S/S 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13,  
<http://runway.vogue.co.kr/2013/10/07/ready-to-wear-2014-ss-junya-watanabe/#0:43>)



<그림 38> Marques' Almeida  
2014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14,  
<http://runway.vogue.co.kr/2014/02/19/ready-to-wear-2014-fw-marquesalmeida/#0:26>)



<그림 39> Marques' Almeida  
2015 F/W 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5,  
<http://runway.vogue.co.kr/2015/02/25/ready-to-wear-2015-fw-marquesalmeida/#0:171>)



<그림 40> Marques' Almeida  
2016 S/S 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18,  
<http://runway.vogue.co.kr/2015/09/22/ready-to-wear-2016-ss-marquesalmeida-collection/#0:26>)



<그림 41> Junya Watanabe  
2014 S/S 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17,  
<http://runway.vogue.co.kr/2013/10/07/ready-to-wear-2014-ss-junya-watanabe/#0:40>)



<그림 42> Parsons MFA  
2015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19,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parsons-mfa/slideshow/collection#76>)



<그림 43> Ashish  
2013 S/S 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0,  
<https://www.safetyfirstproducts.com/products/blue-safety-cat>)



<그림 44> Marques' Almeida  
2012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4,  
<http://www.hellomagazine.com/fashion/designers/london-spr-sum-2012/almeida/13/marques-almeida018a/#arriba>)

### 3. 불연속

데님 패션에서 나타는 불연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5>은 장 폴 고티에의 2010 F/W 작품으로 상의는 전통적인 의복 구성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으나 스커트는 앞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원단을 위에 겹쳐진 형태로 스커트는 상의와 연결되지 않은 불연속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 준야 와타나베의 2014 S/S에 나타난 작품에서 상의의 밑단 길이가 일정한 질서 없이 구성되어 있으며, 바지는 본래의 형태를 분리시켜 다른 원단을 추가하여 스커트로 재구성되어 해체된 후 결집된 불연속의 특징이 나타난다(그림 46). <그림 47>은 3.1 필립림(3.1 Phillip Lim)의 2016 S/S 작품으로 아우터는 데님과 다른 원단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한 쪽 소매의 팔꿈치에만 트임이 있는 등 좌우 소매가 비대칭된 형태로 교란된 불연속의 특징이 나타난다. 하의는 데님을 사용한 쪽은 스커트 형태이고, 다른 원단을 사용한 반대 쪽은 바지 형태로, 의복 형태가 무질서하며 연속되지 않은 불연속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림 48>은 톰 포드(Tom Ford)의 2015 F/W 작품으로 자켓과 스커트는 기존의 의복 구성 방법으로 제작하였으나, 2가지 색상의 모피와 데님을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하게 사용하여 소재 부분에서 혼합에 의한 불연속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49>는 아취시의 2013 S/S 작품으로 상의는 소매가 긴 셔츠이고, 한 쪽의 소매만 접어 좌우가 비대칭된 형태가 보여진다. 아우터는 기존의 의복 구성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나, 의복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은 삭제된 불연속의 특징이 나타난다. 바지의 경우도 한 쪽은 데님, 반대 쪽은 다른 소재와 색을 사용하여 대비가 나타나며 혼합에 의한 불연속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50>은 자크뫼스의 2016 S/S 작품으로 상의와 하의는 의복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이 삭제된 형태이다. 상의는 화이트 컬러의 셔츠 위에 데님 원단을 아무렇게나

걸쳐 묶은 형태이며, 하의도 화이트 컬러의 스커트 위에 개더 주름을 잡은 데님 스커트를 덧입은 형태이다. 이 작품은 일정한 규칙이나 기준이 없는 무질서한 불연속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림 51>는 오프 화이트(Off White)의 2016 F/W 작품으로 상의는 자켓 형태로 데님과 노란색 소재를 사용하여 소재의 연속성이 없이 제작 되었으며, 좌우가 비대칭·불규칙적으로 보이게 착용되어 일정한 규칙이 없는 불연속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2>는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2015 S/S 작품으로 자켓은 앞의 오른쪽 바디스에 에스닉한 무늬가 함께 직조된 데님 원단을 발목까지 길게 구성하였고, 바지는 좌우 길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상의와 하의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전체적인 실루엣과 소재에서 불연속의 특징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이와 같이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불연속의 특징은 기존 의복 형태에서 구성이 삭제되거나 추가되어 비대칭적이고 이어지지 않는 불연속이 보여진다. 캐주얼한 데님과 반대되는 소재와 색상의 사용 및 혼합으로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45> Jean Paul Gaultier  
2010 F/W 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0,  
<http://runway.vogue.co.kr/2009/10/16/ready-to-wear-2010-ss-jean-paul-gaultier/#0:0>)



<그림 46> Junya Watanabe  
2014 S/S I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5. 21,  
<http://runway.vogue.co.kr/2013/10/07/ready-to-wear-2014-ss-junya-watanabe/#0:41>)



<그림 47> 3.1 Phillip Lim  
2016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1,  
<http://runway.vogue.co.kr/2015/09/15/ready-to-wear-2016-ss-3-1-phillip-lim/#0:26>)



<그림 48> Tom Ford  
2015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3,  
<http://runway.vogue.co.kr/2015/02/21/ready-to-wear-2015-fw-tom-ford/#0:8>)



<그림 49> Ashish

2013 S/S 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1,

<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lideshow/S2013RTW-ASHISH/#6>)



<그림 50> Jacquemus

2016 S/S 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8,

<http://www.vogue.es/desfiles/primavera-verano-2016-paris-fashion-week-jacquemus/11664/galeria/20172/image/1040595>)



<그림 51> Off White

2016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5. 26,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off-white/slideshow/collection#27>)



<그림 52> Yohji Yamamoto

2015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4,

<http://runway.vogue.co.kr/2014/09/29/ready-to-wear-2015-ss-yohji-yamamoto/#0:45>)

#### 4. 분열 · 붕괴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분열 · 붕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3>는 장 폴 고티에의 2010 F/W 작품으로 상의와 하의는 불규칙적으로 옷을 찢어 속옷과 신체를 노출하였으며, 하의는 찢어진 부분에 올을 풀어 더욱 분열된 형태가 나타난다. 의복을 의도적으로 슬래쉬해 우연히 속옷과 신체를 노출시킨 분열 · 붕괴의 특징이 나타나는 의복이다. <그림 54>는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2015 F/W 작품으로 데님으로 만든 바지의 무릎 부분에 의도적으로 슬래쉬한 것처럼 보이게 사선으로 구멍을 내고 신체를 보여 주었으며, 의복의 밑단은 올을 풀어 더욱 해체되어 분열 · 붕괴된 디자인이다. <그림 55>는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2016 S/S 작품으로 상의는 가슴 아래를 삭제하여 신체를 노출하고, 카라와 밑단의 올을 풀어 놓았다. 바지의 밑단은 의도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슬래쉬 한 다음 올을 풀어 분열 · 붕괴된 디자인이 보여진다. <그림 56>는 아쉬시의 2016 S/S 작품이며 데님의 상의와 하의에 하트모양으로 구멍으로 낸 뒤 대비되는 레드 컬러의 바이어스를 두른 디자인이다. 의복에 규칙적이고 동일한 형태로 구멍을 내어 신체를 우연히 보여주는 분열 · 붕괴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 57>은 오프 화이트(Off White)의 2016 S/S 작품으로 다양한 크기의 올이 풀린 조각난 데님 원단을 사용하여 스커트를 구성하였으며, 밑단 쪽으로 갈수록 큰 크기의 원단을 사용하였다. 이 작품은 원래의 원단을 분해하여 새롭게 재구성된 디자인으로 분열 · 붕괴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58>은 이치 아더(EACH x OTHER)의 2016 S/S 작품으로 상의는 어깨 부분이 삭제된 셔츠 위에 앞중심이 기울어진 청색의 상의를 덧입은 형태이다. 스커트 위에 의도적으로 올을 풀 데님을 구성하여 닳은 느낌을 주며, 원단을 분열시켜 재구성된 디자인이다. <그림 59>는 포스틴 스테인메츠(Faustine Steinmetz)의 2015 S/S 작품으로

울을 푼 조각난 데님 원단을 이어 상의와 하의를 제작한 것이다. 상의의 소매와 바지의 길이가 좌우 비대칭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밑단의 풀어져 있는 울의 길이를 다르게 하는 등 원단을 분해하여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인 디자인이다. <그림 60>은 빅터 앤 로프(viktor & rolf)의 2016 F/W 작품으로, 자켓은 여러 색상의 데님과 오간자 원단을 해체 및 분해한 뒤 엮어서 제작하였으며, 추상적이고 현대적인 빈티지룩이 나타난다. 바지의 무릎 부분은 의도적으로 슬래쉬를 주어 분열·붕괴의 특징이 보여진다.

이와 같이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분열·붕괴는 의복을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찢고 구멍을 내는 등 붕괴 또는 분열로 인해 인체를 유연히 노출시킨다. 데님의 소재 특성 상 울이 풀린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울을 풀어 원단을 손상하는 파괴 행위로 인하여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며 빈티지한 의복도 연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데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탈현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그림 53> Jean Paul Gaultier  
2010 F/W 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2,  
<http://runway.vogue.co.kr/2009/10/16/ready-to-wear-2010-ss-jean-paul-gaultier/#0:4>)



<그림 54> Marques'Almeida  
2015 F/W I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3. 23,  
<http://runway.vogue.co.kr/2015/09/22/ready-to-wear-2016-ss-marquesalmeida-collection/#0:5>)



<그림 55> Marques'Almeida  
2016 S/S III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1,  
<http://runway.vogue.co.kr/2015/09/22/ready-to-wear-2016-ss-marquesalmeida-collection/#0:25>)



<그림 56> Ashish  
2016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6,  
<http://runway.vogue.co.kr/2015/09/23/ready-to-wear-2016-ss-ashish-collection/#0:12>)



<그림 57> Off White

2016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27,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off-white/slideshow/collection#11>)



<그림 58> EACH x OTHER

2016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5,

<http://nowfashion.com/each-x-other-ready-to-wear-spring-summer-2016-paris-16290?photo=814009> )



<그림 59> Faustine Steinmetz

2015 S/S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7. 06,

<http://www.fashioneditoratlarge.com/2014/09/faustine-steinmetz/>)



<그림 60> Viktor & Rolf

2016 F/W

(출처: 자료검색일 2016. 06. 29,

<http://runway.vogue.co.kr/2016/07/07/fall-2016-couture-viktor-rolf/#0:13>)

<표 3> 데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탈현상

		탈현상							
		탈구성		탈중심성		불연속		분열·붕괴	
현 대 데 님 패 션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복의 기본 구성, 형태, 목적, 기능, 재봉 방법을 해체하여 왜곡, 과장된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복의 중심과 밑단이 기울어져 비대칭적이고 무질서한 형태</li> <li>· 데님의 울을 인위적으로 풀어 중심성 해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복 구성이 삭제되거나 추가되어 연속되지 않는 구성</li> <li>· 데님과 반대되는 소재 및 색상의 혼합으로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복을 의도적으로 찢고 구멍 내어 신체를 우연히 노출</li> <li>· 데님의 울을 풀어 원단을 손상시키는 파괴행위로 인하여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인 형태</li> </ul>	
	사 례								
									
									
									

## V. 결론

본 연구는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탈현상 연구를 위하여 데님의 개념과 발달 그리고 종류 및 특성을 고찰하였고,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의 발생 배경과 특징을 살펴본 후 의복의 기본 구성 중 형태에서 해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탈현상을 선정하여 현대 데님 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적 탈현상을 2010년 S/S부터 2016년 F/W까지의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을 차연, 탈현상,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등 4가지로 분류하고, 현대 패션과 현대 데님 패션을 연관시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는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의 하부개념으로 자크 데리다에 의하여 주창되었다. 데리다의 해체주의 개념은 차연,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 상호텍스트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차연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차연과 흔적의 차연으로 분류되며, 시간과 공간의 차연은 과거, 현재, 미래의 복식을 결합시키고, 흔적의 차연은 낡고 닳는 등 재활용되어 빈티지룩으로 표현된다.

탈현상은 의복의 구성 방식을 파괴·왜곡·무질서·부조화·분해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의복의 기본 구성에 대해 탈피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의복 형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난다.

의미의 불확정성은 추상적인 기호를 사용하거나 규칙 없이 착장하거나 레이어드 룩으로 보여지며, 해석이 감상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상호텍스트성은 성, 탈 T.P.O., 코디네이션, 소재의 고전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인 의미를 가진 각각의 독립된 아이템의 기능, 형태, 착용방법 등을 무시하여 서로 교차되어 혼합됨으로써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탈현상은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붕괴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탈구성은 의복의 기본 구성·형태·목적·기능과 재봉 방법 등을 해체시켜 왜곡되거나 과장된 형태로 나타나며, 복식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형태를 제외하고 다양하고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탈중심은 의복의 수직선과 수평선인 중심과 밑단이 기울어진 형태로 무질서하게 나타나며, 데님의 울을 인위적으로 풀어 중심성이 더욱 해체되어 있다.

불연속은 의복 형태에서 구성이 삭제되거나 추가되어 비대칭적이고 이어지지 않는 불연속이 보여진다. 데님과 반대되는 소재와 색상의 사용 및 혼합으로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분열·붕괴는 의복을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찢고 구멍을 내는 등 붕괴 또는 분열로 인해 인체를 우연히 노출시킨다. 데님의 울을 풀어 원단을 손상하는 파괴행위로 인하여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며 빈티지한 의복 연출이 가능하다.

이상의 연구에서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탈현상을 알아보았으며, 본 연구는 현대 데님 패션을 테리다의 해체주의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복식 디자인이 개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현상 및 사회에 관련하여 복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표현 양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경은주(1995). 현대 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봉만·김연실(2002). 블루: 색의 역사. 서울: 한길아트.
- 권혜숙(2007).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모드와 특성. 패션비즈니스, 11(5), pp. 110-123.
- 금기숙·남후남·박현신·허정선(2009). 20세기 패션 아이콘. 서울: 미술문화.
- 김기욱(2004). Jeans Wear의 디자인 특성 비교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아(2003). 데님(Denim) 패션 디자인 연구: 신규 브랜드 상품 기획·개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0). 진즈 패션의 상징성 연구: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채금석(2002). 진즈패션의 상징성 연구. 服飾, 52(7), pp. 156-166.
- 김언정(2003). 청바지 형태에 따른 소비자 착용실태 및 착의평가.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13). 패션의 역사. 서울: 시공사.
- 김주현·권미정·이순자(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7(4), pp. 578-596.
- 김지연·전혜정(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건축과 복식의 비교. 服飾, 32, pp. 293-312.
- 김채현(2015). 렘 쿨하스(Rem koolhaas) 건축에 나타난 기하학적 조형성을 응용한 데님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호(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민음사.

김해순(2002). 데님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스티치 장식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정(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영화(2007). 원근법형성과 디지털시대 디자인에 있어 해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길순(2000). 패션의 세계.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변영희(2010). 패션뷰티디자인에 표현된 탈현상성과 자유분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희선(2005). '자연-해체 이미지'의 해석과 표현 양식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소연정(2007). 청바지 패턴 제작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영미·이수현(2004). 플리츠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服飾, 56(6), pp. 153-168.

송화순·김인영·김혜림(2012). 텍스타일. 서울: 교문사.

원선영(2000).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정수(2008). 아프리카 민속적 이미지를 표현한 데님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소정(1996). 해체주의적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탈(脫)형식의 코디네이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숙원(2010).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민(2013). 해체주의 관점에서 아르망의 오브제 작업 관한 연구. 한국 기초조형학회지. 14(3), pp. 197-205.
- 이소령(2006). 현대 데님의상에 표현된 해체주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미(2010). 현대 상업 공간 실내에 나타나는 해체주의 혼성의 공간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재(1998).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 1980년대 이후 해체주의 경향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18(1), pp. 107-121.
- 이영재(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창(2015). 해체주의 건축 관점에서 본 프랭크 게리 건축 특징을 적용한 뮤지엄 계획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현·배수정(2015).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데님 소재 표현기법 연구: 2011 S/S~2015 F/W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4), pp. 525-537.
- 이재원(2002).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20세기 패션 문화사. 서울: 한길아트.
- 이효진(2004). 데님의상의 현대문화사적 분석. 服飾, 54(8), pp. 75-86.
- 이혜자·이전숙·유혜자·송경현·안춘근(2006). 의류소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 장정연(2004). 색동 이미지를 활용한 데님의상디자인 연구: 디테일 장식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임·이영임(2006). Martin Margiela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 패션과 니트, 4(1), pp. 64-77.
- 정세희(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희(2000). Jean 소재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올 뽐기와 올 풀기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선·김정혜(2008). 로맨틱 JEAN 패션디자인 연구. 패션과 니트, 6(1), pp. 17-26.
- 정현숙(2000).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 조말희(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구성현상 고찰. 디자인학연구, 36, pp. 111-121.
- 조아라·박명자·이연희(2011). 현대 여성 데님 패션의 코디네이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2), pp. 133-146.
- 조진일(1994). 해체주의 건축의 이론적 배경과 디자인 성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추미경·홍정화(2007).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작품에 표현된 해체주의 경향 : 2001~2006년을 중심으로. 服飾文化研究, 15(2), pp. 326-338.
- 최영옥(2001).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服飾文化研究, 9(4), pp. 574-591.
- 최지향(2009). 블루진. 세계 경제를 입다. 서울: 부키.
- 최진경(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진즈 웨어(Jeans Wear)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패션사전 편찬위원회(1999). 패션 큰 사전. 서울: 교문사.
- 하임성(2010). 디지털 미디어 아트 of 해체주의적 특성과 앞으로의 전망. 기초조형학연구, 11(3), pp. 527-536.
- 한경예(2004). ISSEY MIYAKE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순화(1997). 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

Galliera, Palais(1994). Histoires du jeans: de 1750 a 1994. Paris:  
Paris-Musees.

## 기 타 자 료

<http://explore.levi.com>

<https://kr.pinterest.com>

<http://myfashiontips.com>

<http://nowfashion.com>

<http://runway.vogue.co.kr>

<http://secondstreet.ru>

<http://shows.vogue.com.cn>

<http://www.fashioneditoratlarge.com/>

<http://www.hellomagazine.com>

<http://www.levistrauss.com/>

<http://www.lovelyish.com>

<https://www.safetyfirstproducts.com>

<http://www.style.com>

<http://www.vogue.com>

<http://www.vogue.es>

# ABSTRACT

## Decomposition of Deconstruction in Denim Fashion

Jiang, Man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second half of the 20<sup>TH</sup> century, the domain of deconstructed post structuralism, is the theme of structuralism, which is mainly guided by Jacques Derrida. Between kinds of criticism theories, deconstruction is the most influential one in terms of expressing fine art, visual design and fashion.

Now people have various opinions about the impacts of multicultural on social and cultural expression. Due to the expansion of the multicultural, denim, as well as the public clothing,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tems coming from the foreign designers' collec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Denim have been taking up and making a lot of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high fashion, and eventually jeans had become hand-made up-markets.

The research started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deconstruction theories, and the expression styles and the design of denim are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deconstruction like collections occurred between

2010 and 2016. Besides, th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another understanding of deconstruction through digging the history of denim-fashion and explaining its characteristics.

The main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survey and exemplifying. Reference materials, academic thesis and publications are the resources of literature survey, while exemplifying is based on the online investigations about collection held between 2010 and 2016.

Theory study is built on the investigations on Jacques Derrida's deconstruction theory. To be specific, the theory includes four different areas, such as the difference, decomposition, indeterminacy and intertextuality. The decomposition, decentring, discontinuity and disruption of decomposition express the traits of denim fashion which is different with oth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omposition distilled from denim fashion are mainly about fundament, expression, target, properties and sewing skills, from which the fundamentals and diversity of clothing are represented by distorted or exaggerated forms naturally.

The characteristics of denim fashion's decentring are demonstrated by the centers of vertical curves and horizontal lines, as well as random herms. The splitting of denim's herms highlights the decentring. The traits of denim fashion's discontinuity are the removing of original structure or adding up discontinuous dissymmetry. And the discontinuity and dissymmetry are usually represented by the combination of denim and completely converse colors.

Making random holes on purpose or incidentally exposing human bodies are the main ideas of disruption. The splitting of herms makes

clothes seem to be incompletely vintage.

In this essay, the deconstruction of denim fashion decided the directed of design which is mainly about the independence and creativity. Denim fashion is not only the necessary item of fashion, but also creates more various design perspectives about analysis and development via studying the deconstruction in depth.